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 조선지서 강해 -미가서-

## 네 가지 자유를

(미가 4장 1 - 5절)

“끝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려갈 것이라”(1절).

메시아가 임하시는 날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이 굳게 서고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물려갈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괴로운 일도 만나고 안타까운 형편에 처하게 되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41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의 연설을 통해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 신앙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궁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of want),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of fear) 등 네 가지 자유를 말했습니다. 루스벨트의 이 연설문의 배경은 아마 미가서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힘의 균형을 맞추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 1. 무지로부터의 자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2절).

캄캄한 밤, 지식의 등불이 꺼져 동과 서를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길을 몰랐습니다. 다른 곳에 복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리의 지식을 습득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며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니 많은 이방 사람들이 서로 권면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무지에서부터 자유하여 광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 2. 전쟁으로부터 자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3절).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서 2:4과 요엘 3:10 말씀과 흡사한 내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 보습은 평화를 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했으니 전쟁에 사용했던 도구가 밭을 갈고 추수하는 농기구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평화 뿐 아니라 교회나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불화, 가정의 불화, 교회의 다툼도 하

나남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습득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를 받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은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 끝 날까지 사람들이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신자의 수가 아직 적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신자의 수가 적은 한 전쟁은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 날에 참평화가 옵니다.

### 3.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4절).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다는 것은 먹을 것이 풍족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와 안전도 결국 메시아가 오실 때 가능합니다.

가난이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난은 영적 파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라 먹을 것 때문에 전전공공한다면 예수를 믿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사람 가운데는 10억 이상이 하

루에 세 끼를 못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굶餓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이들이 영원히 주리지 아니하고 기쁨 속에서 평안과 안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 4. 공포로부터의 자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하시니라”(5절).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 세 가지는 어둠과 죽음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대한 공포는 갖난이기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제약과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질서를 찾으면 우리에게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이튿날도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임과 같으니라(골 10:15)

# 2003년 전반기 전도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교회는 2003년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며 6개월의 긴 시간 동안 개인의 시간과 노력 정성을 다 바쳐 전도의 일선에 앞장서 온 성도들을 위로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기 위해 전도학교를 개설, 12주 동안 체계적인 전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전도의 침범을 양성하고 이들로 구성된 70인전도대를 조직하여 전도의 활성화를 이루었

다. 이는 전 교회 내에 전도의 열기로 이어져 전반기 동안 총 655명 등록교인중 460명의 귀중한 생명을 교회로 인도하여 등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제 더욱 크나큰 하늘나라의 상급이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전도에 힘쓴 성도들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 중에 시상할 하게 된다.

오늘 시상을 받게 될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회학교(고등부 이하)는 자체 시상한다.

순위	전도자	전도자수
1등	박이선 집사 조(박이선, 임명숙, 최미경)	53명
2등	박순복 집사 조(박순복, 황정아, 서종숙)	25명
3등	이미숙 집사 조(이미숙, 윤용미, 김명숙)	22명
4등	이순희 권사 조(이순희, 임인선, 오가연, 장기숙)	19명
5등	전하미 집사 조(전하미, 양호선)	17명
6등	심명숙 집사 조(심명숙, 박진경)	10명
7등	최향룡 권사 조(최향룡, 함언호)	9명
8등	윤숙희 집사	8명
9등	왕경래 장로 · 나기태 집사	7명
10등	김동진 집사 조(김동진, 김성순) · 김은태 집사	6명
11등	김정애 집사 조(김정애, 안미경) · 이종창 집사 · 김명숙 성도	5명
<그외 전도자>		
4명 전도	강석우 백효족 안영훈 안태규 이유빈 정지원 진교숙	
3명 전도	김광신 김정은 박유란 오정수 유기순 유예림 이기일 이상은 이수민 장애순 채지수 탁경준 하영숙 박춘자 조(박춘자, 천인숙, 조신임)	
2명 전도	강준영 객매순 김금복 김상철 김세재 김용희 김용희 김민순 박다정 신정은 원용규 유을상 이동호 이미애 이미애스 장인숙 정서은 최정옥 최치순 최찬옥 최혜진 현기옥 황연희 이난화 조(이난화, 최미경) 박재숙 조(박재숙, 최명순)	
1명 전도	강민희 강정임 강태구 강호준 강희자 고유석 고정숙 구진경 구현경 김경숙 김미란 김복순 김선남 김선혁 김진영 김여자 김영희 김윤수 김이준 김재경 김정훈 김종민 김준식 김지훈 김지은 나연신 나한성 남재윤 노용진 문선영 박건영 박경재 박금실 박수현 박영실 박유현 박정민 박정원 박정의 박찬성 박찬희 서순란 서영세 송영호 송준준 송준자 신창호 안옥애 양혜선 오선애 오순배 오진우 이상태 원복순 유재윤 유충우 윤서연 이기찬 이나정 이대중 이동만 이미연 이상현 이상우 이수환 이윤섭 이윤정 이종윤 이주영 임대중 임정은 임예련 임혜연 장지우 전광열 전민화 전진 선진희정 조동희 천정화 최봉애 최소승 최영옥 최재식 최중시 한선규 한성권 한수정 홍일성	

# 장년부 여름 수련회

## -7월17일 교회에서-

우리교회 장년부(1부~5부)는 연합수련회를 오는 17일(목), 우리교회에서 갖는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침체되었던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년부 부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장년부에 출석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6월 새가족 환영의 시간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6월중 등록된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선경 강신태 강정숙 강관임 고군자 고인진 구형영 권오형 권혁선 권혁주 김가람 김경임 김공주 김광진 김금복 김다미 김동은 김동희 김명숙 김범주 김서영 김성훈 김순근 김승주 김아현 김영숙 김영숙 김예지 김우순 김유기자 김윤정 김은하 김재우 김중운 김주한 김지수 김지현 김진상 김진숙 김해리 김혜경 김혜숙 김혜진 나우성 나현태 남기현 남원석 남현주 노준서 노희명 박광옥 박동식 박만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은송 박은평 배옥연 배진우 서정미 석정인 성소원 소서훈 손혜인 송영민 송일석 신가현 신영진 신정인 심만경 안상민 안홍희 오영미 유경민 유성민 유하영 윤성준 윤재민 이경희 이병미 이상운 이상현 이수경 이신영 이신혜 이우진 이재엽 이주영 이준호 이지영 이지은 임문섭 임병옥 임재경 임정민 장경진 장영태 장정민 전상희 전성선 전화진 정경재 정정현 정현수 정현조 조규섭 조민재 조용우 조준영 조창현 주영빈 주영은 진백만 차보람 최 영 최경선 최영규 최윤경 최정환 최지원 최택식 최현규 한민숙 한석준 허 완 허희숙 홍석운 홍석준 홍승인 홍연재 홍준택 홍지원 황병석 황선진 황수지 황예지 이상 137명

## 수화교실

초급반 수화교실이 매주 금요일 7시30분, 606호에서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 7월 행사 계획

- 7.3(목): 대지주 목사회
- 7.6(주): 맥추감사절 - 성찬식, 감사찬양예배 새가족환영회 교육위원회
- 7.17(금): 장로회신학회
- 7.13(주): 전도위원회
- 7.16~19: 대학부수련회(원주 치악관광농원)
- 7.17(목): 사탕부 수련회(교회)
- 7.17~19: 신혼가정부 수련회 장년1부~5부 수련회
- 7.20(주): 교구위원회
- 7.21(월): 전국 장로 수련회(경주) 교육1국 수련회(7.21~22) -유아·유치·유년(7.21~23)·초등부
- 7.27(주): 찬양위원회, 선교헌금
- 7.28(월)~30(수): 중·고등부 수련회(양주 새터 호텔) 에바디부 수련회

# 주일 예배시간에 성찬식, 저녁에는 감사찬양예배로

# 오늘은 맥추감사절

우리교회는 오늘 밀과 보리의 추수를 풍성케 하시고 지난 반년을 보호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교회학교는 부서별로 감사의 행사를 갖는다.

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간은 맥추감사 찬양예배로 드러게 되며 교육 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학생들의 율동과 찬양으로 감사드리는 특별순서도 갖게 된다.

모든 성도가 감사와 회개 찬양의 시간으로 참여하는 맥추 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 2003 농촌 전도대 대원모집

## -신덕교회와 승원 교회로-

전도위원회는 올 농촌 전도대 파송 대상 교회를 충남 보령 소재 신덕교회와 충남 공주 소재 승원교회로 확정하고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봉사인원은 현지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신덕교회 40명, 승원 교회 30명으로 하며 선착순 모집으로 은사가 있는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봉사부서는 전도, 이미용, 의료, 취사, 찬양, 성경학교, 차량, 노력봉사이다.

또한 전도위원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품 및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봉사 지원서 제출과 물품 및 후원금 접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대 장: 김태기 장로		총괄지도: 이규정 목사	
총괄회계: 왕경래 장로		총괄서기: 이동만 집사	
교회명	A팀(신덕교회)	B팀(승원교회)	
지도	한상은 목사	이용식 목사	
팀장	김태기 장로	왕경래 장로	
총무	신용식 집사	이상호 집사	
서기	이계홍 집사	김규태 집사	
회계	최소의 권사	이인숙 권사	
전도 분과	이동만 집사	양준경 집사	
교육 찬양분과	이계홍 집사	정동호 집사	
행사 홍보분과	최광열 집사	김규태 집사	
의료분과	이종창 집사	이상호 집사	
미용분과	김종윤 집사	김명숙 권사	
취사분과	최소의 권사	이인숙 권사	

# 홍해를 건너 사람들!



나연신 집사  
(4교구)

서울교회가 세워진 이후 계속 있었던 홍해 작전이지만 2003년 홍해 작전은 저에게 뭔가 의미가 달

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행사로 참석해보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기도하라고 시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배 안내까지 맡게 되어서 다른 성도들 보다 30분은 먼저 도착해야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피곤치 않던지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밝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홍해작전에서는 제가 기도해 주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고 생전의 어머니(고 김병숙 권사)께서 해 오신 그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의 요즘 신앙생활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환하게 웃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도의 힘을 가르쳐주신 어머니, 홍해작전 그리고 성도님들, 교역자 여러분 모두들 승리하셨습니다.

## 오영숙 성도 (12교구, 에바다부)

이번 2003년 홍해작전은 나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는 내가 기독교인임과 동시에 하나

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자량이 넘치는 기쁨의 승리감을 가져다 주었다.

홍해작전을 처음 들었을 때 집이 멀고 생활리듬이 깨진다는 이유로 또 나이도 좀 들어서 몇 번만 참석하려는 생각을 가졌으나 홍해작전 선서를 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수 없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참석하였다.

첫째 날부터 7대 기도제목을 통한 공동기도와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환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내가 좌우명을 삼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특별히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기쁨이 가득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날이 기다렸다.

그 다음 날 목사님께서 홍해작전 중 물에 빠져 못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하시니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는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의무감이 생겼으며 전도의 필요를 느끼면서 사명감을 갖고 사랑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날의 기도제목과 더불어 예배 후 10분 이상 그리고 예배 20분전에 도착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렘 33:3)"처럼 응답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드렸다.

그 외에도 앞으로 더 많은 기도 응답이 계속되리라 믿는다. 2003년 홍해작전을 놓쳤더라면 오늘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이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도 들을 수 없었으며 또 다른 영혼을 구하는데 일익을 감당하지 못했으리라 본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를 일깨워주며 생명의 성령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기쁜 생활을 하게 해 주시고 늘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확신을 홍해작전을 통해 받았다.

# 새가족부 ■ 수료하며

## 김성의 성도(에바다부)



작년 말 지방에서 올라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농아인이 서울교회는 신앙성장은 물론 사랑부와 에바다부가 있어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며 추천해 주셔서 올해 신년 첫 주에 교회에 등록했다. 그분 말씀대로 첫날부터 에바다부의 갖가지 행사에 수화통역으로 분주했다. 한주 한주가 교회생활의 낯설 시간도 없이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

어느 날 에바다부 예배를 드리기 전 반주에 맞춰 찬양을 흥얼거리게 됐는데 그게 바로 에바다부 교육실 옆에 있는 새가족부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임을 알았다. 늘 새가족부에는 찬양이 있었고 교육이 끝난 후에는 교회에 오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분들이 서로 삼삼오오 그룹을 지어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부러웠다. '나도 새가족인데...' 이런 마음에 뒤늦게 새가족부 교육을 자청했고, 이제야 수료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 큰 교회 안에 덩그러니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새가족부와 만남을 통해 교회 곳곳에서 마주치며 건네는 눈인사에 성도들의 사랑이 보이고 교사들의 관심과 기도는 늘 든든한 후견자를 얻은 듯하다. 그리고 새가족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유난히 손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 겨울이 한참 지나기까지 장갑을 끼고 다니고 늘 내 미운 손은 주머니 안에 있어야 했다. 교회 안에서 손잡고 기도하거나, 손을 펴고 찬양할 때면 그렇게도 좋던 찬양 시간도 지루하고 반주자는 왜 그렇게 더디게 반주하는지 야속하기만 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용기를 내어 수화로 찬양을 했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자기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보았다며 악수를 청해 왔다. 세상에는 예쁜 손들도 많지만 열등감 많은 이 연약한 손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천사도 흠모할만한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났다. 그때 처음으로 미운 손이지만 열 손가락이 내 신체에 온전하게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찬양하고 싶었던 작은 용기가 지금은 생명의 말씀을 옮기는 도구가 되어 이 손끝을 통해 농아 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 매주 주일과 수요일 예배통역으로 힘들지 않으며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감히 얘기한다. 저들이 있음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저들의 기도의 힘으로 매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내 삶에 저들을 보내주심에 감사 할 따름이라고 나의 연약함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게 가능케 하시는 그분의 크신 능력을 오늘도 찬양한다.

# 2003 청년 Calling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권재현 (청년부 회장)

7월 13일(주일) 3부 예배 후 601호실에서 갖는 청년 calling festival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년부원들 모두가 합심하여 91년 교회 개척당시부터 현재까지 서울교회에 등록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명 한명 직접 연락하고 나 홀로 집에 있는 양들을 찾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대대적으로 초청을 준비해온 calling 행사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간의 주일청년집회 기도회와 토요일기도회, 조장모임기도회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년부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 받았을지도 모르는 상처나 외로움, 기대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한데서 오는 실망들을 이해하며, 같이 아파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직분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calling 행사시 하나 된 청년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청년 소그룹 별로 즐거운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낄 수 있었고 받은 사랑을 기꺼이 나눠주고자 소원하며 기도하는 청년부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눌 calling 행사에서는 이태훈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청년들의 발표를 통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환영의 시간으로 어색함을 떨쳐내며 만나 홀에서 만찬을 나눔으로 교제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03 청년 calling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참된 교제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자리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며 78년생 이상 청년부에 출석하지 않는 미혼 청년들이 calling행사를 통해 청년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아담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정이 얼마나 무 의미하게 변해 가는지 특별히 신문을 인용하지 않아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 풍조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있다. 주일이 되면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며 찬양예배까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거기에 찬양예배의 베들레헴 찬양대원으로 주님의 성호를 찬미하는 이들! 그들은 진정 아름다운 아담들이다.

지난주일 베들레헴 찬양대는 20일간의 홍해작전을 마치고 승전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부족한 연습시간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를 비롯해 4곡을 준비한 베들레헴 찬양대는 우선 그 모습부터가 압도적이다. 자주색 보타이를 맨 모습하며 흰철한 얼굴 모습이 베들레헴 찬양대에 입단하려면 우선 얼



굴이 잘생겨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빛 되신 주께서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업을 찬양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은 흥해를 건넌 후 모세가 부른 노래 처럼 아름다웠다.

한편 색소폰 솔로를 한 강석우 집사는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 번 연주해달라는 목사님의 앙코르 요청을 받았고, 박선영, 김지영, 안규현 등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각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으로 협연하여 이번 감사 찬양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실만한 제사였다.

12년 전 몇 명 안 되는 대원으로 시작한 베들레헴 찬양대가 그간 지휘자 임훈규 장로님의 기도와 수고의 땀이 열매를 맺어 80여명에 이르는 대원을 확보하게 되어, 이제는 남성찬양대로서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고 서울교회 남자성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바라기는 베들레헴 찬양대가 서울교회의 명실상부한 남성찬양대로서 그 위상과 실력을 더욱 높이고 가끔은 색다른 곡으로 우리 곁에 다가가 주기를 소망해본다.

허숙 (편집부)

## 선교의 사명을 품고

오선애 (청년부)



지난 1994년 대학 입시를 막 마치고 순례자에 글을 쓰고 9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인생의 두 번째 큰 과제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리에서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닌, 그러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만이 있을 뿐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버지는 우리 선혜는 10년 후면 아버지 품을 떠날 것이라며 늘 두 아들들보다 더 잘해주셨다. 그러나 10년하고도 몇 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혼은 커녕 연애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을 바라보시며 내색은 안하셨지만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제 7월 12일 결혼을 하고 15일에 신앙을 따라 방글라데시로 간다. 신앙은 선교의 꿈을 가진 청년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은 선교사이다.

지금의 신앙을 만나기 전에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다. 내가 왜 하나님 잘 믿는 크리스천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외로 간단한 답을 주셨다.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신앙을 만나 그에게 선교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지난 98년 여름 내가 다니던 대학의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3개월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해 무지한 나 자신

을 발견하고 도전 받았던 것을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여름 우리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단기선교에 동참하여 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아시아 선교를 알게 된 것도 나눌 수 있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내가 가고 싶어 간 것 같았으나 지금 돌아보면 내가 지금의 신앙을 만나 방글라데시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었다. 정말 결혼이라는 큰 대사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릴 뿐이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교회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의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된다. 이제 결혼을 하여 서울교회를 잠시 떠나가지만 멀리서도 함께 중보하며 교제 나누기를 소망한다.

### 기관별 식당 봉사자

7.6(주) - 베드로 남 선교회 7.13(주) - 바울 남 선교회  
7.20(주) - 엘리야 남 선교회 7.27(주) - 모세 남 선교회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일(금) 장로교 신학회 월례모임을 소집한다.
- 이사: 함송현 권사 (8교구) 노원구 월계동 18번지 한진그랑빌 APT125-602
- 금주의 식사: 감태기 장로·윤문자권사 가정 (어머니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캄보디아 파송을 준비하며

백길수 집사

저의 어린시절은 부모님이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토속 신앙과 불교 사이에서 종교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었습니다. 군에 가서도 철저한 무교 주의자였기에 교회 다니는 사병들을 질타하고 압박하는 역할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중한 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어 돌아가실 때 "세계 각처에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유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허송세월 하다가 새벽 운동하러 나갔다가 교회 종탑의 십자가에 이끌려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두 달 후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팀에 지원한 이유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고 더욱이 선교라는 큰일은 단 한번도 시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자신의 믿음을 강건케 하며 한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소명을 감당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되겠기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 농촌 전도대 파송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